

군산시, 상용차 연구개발 토대 마련

시스템 거점기관 지원사업(중대형 상용차 글로벌 경쟁력 강화 부문) 공모 선정... 5년간 153억 투입

군산시가 상용차 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기술동향 대응을 위한 연구 인프라 구축과 함께 관내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시는 산업진흥지원부에서 주관하는 '2017년 시스템 거점기관 지원사업(중대형 상용차 글로벌 경쟁력 강화 부문)' 공모에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중대형상용차부품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은 2018년까지 추진하는 수출 전략형 미래그린상용차 기술개발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향후 5년간 국비 95억을 포함, 총 153억원의 예산이 투

입된다.

이번 사업은 군산시와 전라북도, 자동차융합기술원이 최근 상용차의 안전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지역 상용차부품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지역부합성, 시급성, 타당성 등을 고려해 기획된 것으로, 내년엔 종료될 수출전략형 미래그린 상용차 기술개발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호 역할을 분담하여 심혈을 기울여 공모를 준비해 온 바 있다.

이번 선정에 따라 군산시는 현재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구축하고 있는 상용차부품 주행시험장과 연계하여

상용차 주행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연구기반을 구축하고 국제인증체계 및 기업성장지원 등을 통해 상용차 부품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추진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또한 전북도 자동차융합기술원과 함께 상용차부품 주행 시험장과 연계하여 빗길 및 눈길 등에서 주행안전성을 평가하는 저마찰 시험시설과 긴급상환시 차량이 자동으로 제동되고 차선이탈을 방지하는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부품업체의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차량주행평가의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과 더불어 해외인증 기관과 연계한 국제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에서 개발된 부품의 인증취득을 지원하여 수출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중대형 상용차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을 통해 상용차 부품업체의 매출액 1,500억 증가, 상용차 기술 선도기업 20개사 육성, 신규고용 창출 등을 실현해 관내 상용차 산업의 양적, 질적 성장을 도모하여 뿌리 산업 등 연관 산업의 입지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관 기자



군산시 사회복지인 연합체육대회 개최

군산시 사회복지인 연합체육대회가 군산청소년수련관에서 사회복지시설·기관 종사자 및 사회복지공무원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군산시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체육대회는 사회복지시설·기관 종사자들과 사회복지공무원의 사기진작, 유대강화 및 소속감 증대로 지역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을 위해 마련된 것.

명랑운동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복지종사자들이 한마음으로

땀과 열정을 나누는 화합의 장이 됐다.

홍진용 사회복지협의회장은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온 사회복지인과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이번 체육대회를 통해 복지 현장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 2004년 11월 설립돼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산=장현기 기자

익산시, 국비확보 막바지 '구슬땀'

익산시가 중앙 부처의 예산 편성 마감시한을 앞두고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한 막바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2018년 국가예산 확보가 꼭 필요한 사업의 국비 요청을 위해 세종시에 있는 정부 청사를 방문했다. 정 시장은 이날 중앙부처 사업담당자를 직접 만나 적극적으로 익산시 국비 지원을 당부했다.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는 올해 준공 예정인 귀속속보석 클러스터 조성사업 국비 29억원에 대한 지원과 안전보호 융복합 제품산업 육성사업의 예타 심사가 6월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 '찾아가는 장난감 대여 서비스' 호응

육아종합지원센터
연회비 2만원
배송비 2000원



익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가 호남 지자체 중 최초로 '찾아가는 장난감 대여 서비스'를 추진해 영유아 가족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익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 호남 지자체 중 최초로 '찾아가는 장난감 대여 서비스'를 추진해 영유아 가족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센터는 장난감 대여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660여종, 2,000여개의 장난감을 시민 모두가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익산시 전 지역 순회 택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4월까지 총 1,050여명의 시민에게 3,000여점의 장난감을 대여했다.

이 사업은 정현을 시장의 일자리 창출 사업인 '뉴딜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경력 단절 여성을 채용하여 전문성 및 업무 능력을 높이고, 시민들에게는 맞춤형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지원 및

시민만족도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그동안 렌트카를 대여해 운영해 왔으나 이달 찾아가는 장난감 대여용 차량을 구매해 예산 절감과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했다.

센터는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1일 평균 6~7세대를 순회하며 장난감 대여 서비스를 제공해 아이가 어려 밖에 나오지 못하거

나, 지적 특성으로 센터를 방문하지 못하는 영유아 가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양육의 금전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자는 연회비 2만원과 배송비 2,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전화(☎063-4602)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근대 문화지구에 '디자인 태극기 거리' 조성

군산시 도시재생과는 근대 역사의 아픔을 간직한 근대 문화지구(월명동 테마가로)에 디자인 태극기 거리를 조성하여 광복과 나라사랑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에 조성된 '디자인 태극기 거리'는 도시재생 선도지역인 월명동 테마가로 일대를 중심으로 구영3길에서 구영7길까지 약 2.6km 구간에 배너형 태극기를 설치했으며 방문객들에게 축제 분위기와 태극기 물결을 선사하고 근대역사 문화 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인식시키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태문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태극기 거리 조성으로 지역 주민 및 방문객에게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군산=장현기 기자

군산 하늘평영농조합, 들녘경경제 사업다각화 선정

군산시는 들녘경경제 사업다각화 공모사업에 하늘평영농조합이 최종 선정되어 국비 4억원을 확보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들녘경경제 사업다각화 사업은 쌀 산

업 다양화를 통해 타작물 재배 생산 기반정비, 쌀가공·판매·체험·관광의 연계를 위한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성원 농정과장은 "이번 공모사업의 선정은 쌀 산업의 다양화와 논 타

작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 농촌의 지속 성장을 도모해 나갈 대표적 농림사업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늘평영농조합은 곡류를 이용한 누룽지, 미숫가루 등의 개발로 쌀 산업을 다양화시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군산=장 현 기자

청암산 수변길, 특색 있는 생태테마길로

군산시 공무원, 청암산 에코라운드 사업 현장 찾아

산과 저수지를 배경으로 태고의 자연 그대로를 품고 있는 청암산이 우수한 생태자원을 활용한 친환경적 사업을 통해 몸과 마음의 힐링을 찾는 관광 명소로 한층 각광받을 전망이다.

지난 19일 문동신 군산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국소장 등 20여명의 공무원들은 청암산 에코라운드 사업 현장을 찾아 관광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모색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습지와 대나무 숲, 물속에서 자라고 있는 왕버들나무 군락지 등 천혜의 자연경관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청암산을 친환경적인 생태관광지로 조성하는 다양한 방안

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청암산 에코라운드는 총 72억(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이 투입되고 2016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사업 특성별로 차등 지원 받아 실시하는 사업으로 주로 생태계보전복원사업, 인프라시설 확충사업, 주민소득창출 사업 분야로 나뉘어 추진된다.

한편 군산시는 이날 청암산 오토캠핑장을 찾아 캠핑장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청암산 생태탐방길을 쉽게 오를 수 있도록 연결하는 산책로 조성에 대해 논의했으며 주변 일대 소나무 재선충 피해지 현장을 방문해 생태복원 계획에 대한 점검도 실시했다.

/군산=장현기 기자

전주역에서 '붉은악마 응원열차' 고객사은 행사

코레일 전북본부와 전주시는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2017 개막식이 열리는 20일 전주역에서 '붉은악마 응원열차'를 이용해 전주를 찾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풍물놀이 공연, 사은품 전달 등 고객사은 행사를 가졌다.

'붉은악마 응원열차'는 FIFA U-20 월드컵의 붉은조성과 전주관광 활성화를 위해 월드컵 기간 동안 전주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한국전 경기 관람과 전주시 주요관광지를 함께

돌려볼 수 있도록 구성된 스포츠관광퓨전열차이다.

한편, 전주시, 코레일 전북본부, 코레일 관광개발은 전주 관광활성화를 위한 '붉은악마를 사랑여행 KTX 50%할인 묶음상품'과 세계태권도대회를 겨냥한 '무주로 가는 태권열차' 등 전라북도에서 열리는 주요 세계대회와 지역축제를 연계한 테마관광 열차상품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